

大河기획/한라산 학술대탐사(198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32)

수려한 경관속에 '4·3' 유적 남아

입력 : 2004. 06.04. 00:00:00



▲수악계곡 일대에는 4·3유적지가 산재해 있다. 너비 1m, 높이 2m쯤 되는, 비교적 원형이 잘 남아 있는 돌담이 숲 사이로 시야에 들어온다. 중간 중간에는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초소와 망루를 갖추고 있어 한눈에도 이곳이 중요한 진지였음을 느끼게 한다. 신레리 사람들은 4·3 당시 이곳 성을 쌓는데 동원됐었다고 증언한다.

○...한라대맥 탐사단은 국립공원지대로 들어섰다. 탐사구간으로는 제3구간에 해당한다. 그 경계는 한라산을 횡단하는 5·16도로이다. 한라산탐사단은 4월 17일 수악계곡을 다시 찾았다. 대탐사 1부 '하천과 계곡' 탐사때인 지난 2000년 11월 26일 이후 3년여 만이다....○

◇수악계곡·보리악

수악계곡 일대에는 4·3유적지가 산재해 있다. 너비 1m, 높이 2m쯤 되는, 비교적 원형이 잘 남아 있는 돌담이 숲 사이로 시야에 들어온다. 중간 중간에는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초소와 망루를 갖추고 있어 한눈에도 이곳이 중요한 진지였음을 느끼게 한다. 신레리 사람들은 4·3 당시 이곳 성을 쌓는데 동원됐었다고 증언한다. 수악계곡은 신레천의 주류다. 신레천은 사라오름과 진달래밭 대피소 상류에서 발원해 남제주군 남원읍 신레리로 통하는 하천으로 돈내코가 있는 효돈천과 더불어 하천 전 구간이 국가지정 천연보호구역이다. 수악계곡은 5·16도로에 인접해 있으며 깊은 계곡과 울창한 숲을 간직한 한라산의 주요 경관지중 한 곳이다.

탐사팀은 수악계곡을 거슬러 보리악 탐사에 나섰다. 탐사에는 국민생활체육제주도등산연합회(회장 진우창·신흥택시 전무이사) 소속 임원 10여명이 동행했다. 이 단체는 6백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도내 대표적인 등산단체로 2003년 11월에는 생활체육 전국등산대회도 유치하는 등 활동도 활발하다.

수악계곡 일대에는 4:3 유적지가 산재해 있다. 계곡이 깊어 로프에 의지해 유적지로 발길을 돌렸다. 계곡 동쪽으로 오르면 너비 1m, 높이 2m쯤 되는, 비교적 원형이 잘 남아 있는 돌담이 숲 사이로 시야에 들어온다. 중간 중간에는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초소와 망루를 갖추고 있어 한눈에도 이곳이 중요한 진지였음을 느끼게 한다.

신례리 사람들은 4:3 당시 이곳 성을 쌓는데 동원됐었다고 증언한다. 주민들은 “남원읍 신례리와 하례리 주민들이 대거 동원돼 한달 가까이 성을 쌓았고 성이 완성되자 주민들은 마을로 내려가고 이 곳에는 경찰관과 민간인 협조원 5~6명이 배치돼 초소를 운영했다”고 한다. 4:3 당시 토벌작전을 위한 일종의 주둔소였던 것이다. 특히 이곳은 지금은 숲이 우거져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시야가 트여 해안까지 조망이 가능했기 때문에 주둔지로서는 적지였을 것이다.

탐사팀은 주둔지를 뒤로 하고 다시 계곡으로 들어갔다. 수악계곡의 위용은 협곡에서 두드러진다. 전문가들은 오름을 관통해 형성된 대표적인 계곡이 수악계곡이라고 한다. 오름은 보리악을 지칭한다. 계곡 양쪽으로 오름 송이층 단면들이 확연히 관찰된다.

해발 680m 지경에는 폭 2~3m, 높이 20여m, 길이 60여m의 협곡지대가 주위를 압도한다. 백두산의 유명한 '지하삼림'지대를 연상케 할 정도다. 백두산 지하삼림은 천지에서 발원해 장백폭포를 따라 이어지는 이도백하(二道白河)가 관통하는 지점에 있는 울창한 숲지대로 평면보다 낮은 낭떠러지 밑에 삼림이 발달된 독특한 공간이다.

수악계곡의 협곡지대를 통과하면 하천 합류지점이 나타난다. 사라오름과 진달래발 상류에서 발원한 서로 다른 두 갈래의 하천이 보리악에서 만나 대천을 이루는 것이다. 하천 합류 지점에서는 보리악 정상을 파괴하며 형성된 수직의 송이층 단면이 하천바닥에서 약 1백m의 높이로 발달돼 있다. 오름이라는 화산체의 중앙부를 하천이 통과한 결과이다.

신례천은 보리악에 이르러 거의 수직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산체에 막혀 유로를 바꿀 수 밖에 없다. 그 사이 보리악은 계속해서 침식이 진행되고 있다. 보리악으로 향했다. 겨울을 지낸 오름은 벌써 신록을 뿜내기 시작했다.

탐사팀은 보리악 정상부에서 참으로 귀중한 발견의 묘미를 맛보았다. 무려 6개의 기둥을 갖고 있는 벚나무를 확인한 것이다. 아무리 유심히 살펴봐도 나무는 한그루인데 뿌리로 뻗어나가 6개의 기둥을 이루고 있다. 수고는 약 12~13m. 식물이 새로 싹이난 맹아가 자라 이만큼 성장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가히 문화재급이다.

보리악 숲도 사람들의 무책임으로 생채기를 내고 있다. 한때 이곳 숲도 표고버섯 재배장으로 활용됐으나 재배가 중단된 후 아무런 사후조치를 하지 않는 바람에 망가지고 있다. 나무에 칭칭 감긴 철조망이 생육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 리포트]수악계곡의 난대상록활엽수림

수악계곡의 위용과 경관은 협곡지대에서 두드러진다. 해발 680m 지경에 위치해 있으며 폭 2~3m, 높이 20여m, 길이 60여m의 협곡지대다. 수악계곡은 해발 약 400m에서부터 700m에 이르는 난대상록활엽수가 잘 보존된 계곡을 말한다.

수악계곡은 온도에 따른 식물의 수직분포란 측면에서 아주 교과서와 같은 장소로 잘 알려진 장소이며 바닷가에서 시작하여 해발이 높아질수록 분포하는 식물이 난대수종, 온대수종, 고산수종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그 중 수악계곡은 구실잣밤나무, 붉가시나무, 참가시나무, 후박나무 등 난대상록활엽수가 가장 잘 보존된 하천이다.

이 계곡의 하류에 분포하는 식물 중 특이한 수종은 담팔수를 들 수 있는데 이 식물은 일본과 대만, 우리나라에서는 서귀포시 천지연과 숲섬 등에만 자생한다고 알려진 아열대성 상록 활엽수로서 식물지리학적, 생태학적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아 자생지보호가 필요한 나무이다.

좀더 계곡의 상류지역으로 올라오면서 분포하는 주요 수종은 구실잣밤나무, 종가시나무, 비쭈기나무, 황칠나무, 동백나무 등으로 변화하며 해발 500m까지 우점수종은 구실잣밤나무이며 이 균락에 다른 난대상록활엽수가 같이 생육하고 있다.

해발 500m부터 800m까지는 대부분 붉가시나무가 우점하여 자라고 있는데 보통 수고는 약 13~15m정도이며, 가슴높이 직경은 평균 25cm이상인 나무들이 균락을 이루어 웅장한 경관을 연출한다.

붉가시나무는 수형이 웅장하고, 엽색이 깨끗하여 그 나무 자체가 경관수나 조경수로 이용되기도 하고, 목재는 무늬가 아름답고 재질이 단단하여 전부터 대팻집, 우마차의 바퀴 등 기구재로 사용되어 충분한 조림가치를 지니고 있다.

해발 750m이상 지역은 졸참나무, 때죽나무, 단풍나무, 벚나무와 혼효되기 시작하여 800m지점부터는 사스레피나무, 굴거리나무 등을 제외하면 난대상록활엽수림은 거의 분포하지 않고 낙엽수림대로 바뀐다.

수악계곡 주변은 국내의 난대상록활엽수림 중 가장 범위가 크고, 종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장소이다.

<강영제 탐사위원(난대산림연구소 / 식생분야)>

특별취재팀/ 한승철부장(기획특집부)

강시영·이윤형차장()

표성준(편집부)·강경민기자(사진부)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